

대학교육과 교양교과목에 대한 설문조사

“대학교육에 대한 만족도 낮다”

지난 겨울방학 중 진행된 교양 교과과정 1차개편으로 신설된 교양교과목과 전반기 대학교육 과정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울·수원 양캠퍼스 ‘교과과정심의위원회’(이하 교심위)가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했던 설문조사결과가 최근 발표됐다.

“우리학교의 교육과 교과과정” “신설 교과목에 대한 강의평가분석”이라는 주제로 실시된 이번 설문조사에서는 학교의 교육환경 대학교육의 근본문제, 강의내용에 대한 평가등이 중심적으로 다루어졌다. 먼저 대학교육에 대한 설문조사분석에서는 일반적인 대학교육의 목적, 교육의 근본문제점에 대한 인식정도, 우리학교 교육의 문제점등이 주로 다뤄졌는데, 대학교육의 근본적인 목적을 묻는 질문에 전체 응답수의 80% 이상이 “학문탐구와 진리의 추구”라고 답변했으며, 대학을 진학한 목적을 묻는 질문에도 50%이상이 같은 답변을 해 비교적 대학의 근본적인 목적과 진학 동기가 근접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우리나라교육의 근본적인 문제점을 묻는 질문에는 50% 이상이 “학문탐구와 진리의 추구”라는 교육제도의 문제점을 지적

또한 민족통일론, 영어, 국어, 한국사, 체육 등 공통교양필수과목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는 민족통일론을 제외하고는 내용부실에 대한 불만이 가장 크게 지적되고 있다.

현행 교양영어에 대한 설문에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영어과목의 개선에 동의하고 있어 기존의 영어과목이 비효율적인 강의로 진행되어 왔음을 반증하고 있다. 국어과목에 대해서도 영어과목

의를 담당하는 교수, 강사의 자질문제 29.4%, 시대에 뒤떨어진 내용에 대한 불만이 각각 26%로 나타나 전공과목에 대해서는 다양한 내용의 불만이 토로됐다. 즉 현재 진행되는 전공교과과정 대부분의 강의가 사회현실이나 사회진출후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는 내용으로 채워져 현실과의 괴리감이 크고, 이것을 가르치는 강사의 학문적 자질 또한 학생들의 이상적인 학문적·인격적 욕구

며, 28%의 학생은 교수자람에 만족하는 답변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대학교육문제에 대해 주관식답변을 한 내용중에도 학생들의 자질문제, 교수충원문제, 전공과목의 확대, 도서관 문제, 교수의 자질문제등에서도 공통된 답변이 많아 여러가지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생의 자질문제에 대해서는 강의준비를 방해해 해오신 교수

시험, 학력위주의 교육제도 지적 교양과목 내용 부실에 높은 불만

과 마찬가지로 전체응답자중 거의 대부분이 내용개편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보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강의내용에 대한 불합리성과 올바른 방향성 없는 형식적인 강의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강한 불만을 엿볼 수 있다.

이밖에 국사, 체육에 관한 질문에도 비슷한 반응을 보이고 있어 결론적으로 우선 시급히 요청되는 것은 각 교과목들의 내용개편이었고, 대부분의 교양필수과목들이 형식적인 강의진행으로 내용성의 결여가 큰 문제점으로

에 못 미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또한 전공과목 개편시에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에 대한 물음에는 약 70%의 학생들이 다양한 전공분야를 설치하여 전공분야의 선택의 기회를 넓혀야 한다고 답을 해 전공분야에 대한 불만이 구체적인 지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또한 이와 관련하여 교수충원의 필요에 나머지 학생 대다수가 응답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점의 강의를 전혀 성의없이 수강하고 있다”는 답변이 많았으며, 자신의 전공이 아니면서 강의

게 학문적 질을 의심하게 된다”라고 대답한 학생도 적지않아 교수충원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하고 있다.

교수의 자질문제에 대해서도 주관식 답변을 통해 “공부를 해 오지 않은 교수가 있다” 강의시간에 대한 인격적 예우가 부족하다” 잘못된 점에 대해서 인정하지 않고 학생만이 틀렸다고 한다” 등의 답변이 나와 학생들

고 있는 교수에 대한 불만의 내용들을 엿볼 수 있었다.

또한 교양선택전반과 민족통일론 등 90학년도에 신설 또는 개편된 교과목들에 대한 강의평가 분석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인 평가가 이루어졌다.

교심위 신설교양교과목의 강의의 자질에 대해서는 대체로 만족하는 편이었으며, 강사의 교수법에 대해서는 부족한대로 만족한다는 답변이 많아 강사의 교수법에 대해서는 큰 만족을 느끼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나 신설교양과목의 강의의 학습분위기에 대해서는 별로 좋지 않았다”라는 응답이 많아 교양과목에 대한 학생들의 태도는 물론 학점만 따기 위한 수강이라고 생각하는 사고방식도 큰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자료제공:교과과정심의위원회 (조사자류부)

사회학과 발전추진위원회 활동을 지켜보고

학자투의 중요한 계기로 평가돼

88년도 학원자주화의 목소리가 학생들로부터 제기된 이후로 대학은 많은 변화를 시도해왔다. 그 중에서도 교수추진문제 등과 같이 교권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학생과 교수사이에 많은 이견 차이속에서 혼란만을 거듭하여, 서로간 불신만 높아졌던 것도 또한 사실이다.

지난 6월1일 사회대 사회학과는 과발전과 교육조건개선을 위해 과학생회7인, 학과교수위2인, 각 학년대표6인으로 구성되는 사회학과발전추진위원회(이하 사발추)를 구성했다.

사발추는 지난 6월5일 △교수·강사충원에 대한 공개 및 학생의견반영 △학습환경보장 △강의평가제 실시 △학생회지위 인정 및 보장 등을 요구하며 교수와의 면담을 요구하였다. 이에 교수와의 1차면담을 가졌으나 교수의 교권침해라는 주장이 맞서면서 결렬됨에 따라 10일까지의 계속적인 면담요청과 대가보급, 11일 총학생회 통한 농성등의 활동을 했다.

그후 12일에는 이계택 사회대학장, 사회학과 교수와 학생대표가 협의하여 △2학기 사회과학법론 및 사회학이론전공자에 대한 교수동원 △신규교수채용시 전공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수렴 △교, 강사는 전공분야에 한하여 강의실시 △강사채용시교수와 학생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이 일치할때 결정 △매학기 강의평가제 실시 △학생회의

지위보장등에 대하여 합의하였다.

이날 교수와 사발추가 합의된 내용에

서 “신규교수채용시 전공분야에 대한 학생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한다”는 것은 학생들의 의견을 수용할만한 확실한 제도적 장치가 없기 때문에 계속적인 논의를 통해 좀더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또한 강사채용시 ‘교수와 학생간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이 일치할때 결정한다’라는 것은 강사채용시 학생들의 참여권 보장한 것으로 그 의미는 크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전반적으로 합의사항을 보았을때 기존의 교수주도의 강의를 학생이 교와 협의하여 조정할 수 있도록 했다는 것도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사발추의 문제제기는 89년의 대지협 건설에서부터 시작하여 최근 세종대학원 자주화추진에서 보이듯이 학원주체중의 하나인 학생이 학원에 올바르게 참여하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보여지며 앞으로의 활동에 중요한 선례로 남게될 듯하다.

또한 대학에서 요즘처럼 각 주체에 목소리가 높고 특히나 교수들은 대대교수측은 교권침해로 학생들은 자율권탄압이라는 측면이 강조되는 시점에서 사발추의 행적들은 중요한 계기로 평가될 수 있을 것이다.

(오세훈 기자)

다시금 깨닫은 농촌활동의 참의미

90년도 하계 농촌활동 점검

어머니의 땅, ‘생산의 땅’이라 불리우는 농촌. 작년에 전국적으로 1만여명의 농촌활동의 인원수가 몰려선 90여명의 농촌활동이 이 땅 구석구석에서 조국에 대한 사랑과 민족에 대한 긍지를 배웠다고 한다.

7백여명 32개팀으로 구성된 서울캠퍼스 농촌활동대는 지난 6월 27일 망월동묘지 순례후 광주 전남대에서 1박, 사전 M.T를 갖고 다음날 28일 순창군 순창읍에서 ‘하계농촌발대식’을 치른 뒤 9월 10일 일종의 농촌활동에 들어갔다.

정부의 농촌활동지체책들은 이상·면장등 유지들을 통해 이루어졌고 서울캠퍼스 신방파의 경우 분반활동을 했다는 이유로 마을회관을 찾거나 노숙을 하기도 했으나 농촌활동의 높은 결의수준과 농민들의 뜨거운 호응으로 32개팀 모두가 마을에서 무사히 농촌활동을 진행 할 수 있었다.

한편 평택으로 출발한 수원캠퍼스 2백50여 농촌활동대원은 용인·성남지역 총학생회 연합에 소속되어 8개리 17개 부락에서 지리산 농촌활동을 진행하였다. 순창과 평택지역은 양캠퍼스 모두 두차례 이상 농촌활동을 진행하였던 곳으로서 농민들과 농촌활동대의 유대는 타지역의 모범이 되었다.

오전과 오후시간을 차지하는 근로활동은 예전에 비해 그 활동량이 감소하였고 근로활동중 농민과 함께 작업을 하면서 단순노동이 아니라 농민과의 부대끼 속에서 노동의 신성한 가치와 밀접한 농촌현실에 대한 재인식이 충분히 진행될 수 있었다.

숙달되지 못한 근로활동이었지만 농민들로부터 느끼고 배우려는 농촌활동의 열의와 자세로 부족함을 메꿀 수 있었다.

그날의 근로활동은 마치 고나면 농민들의 따뜻한 정서를 느낄 수 있는 분반활동 시간이 근로활동으로 지쳐있는 대원들은 기다린다.

아들만, 학생만, 여성농민만 청·장년으로 나누어지는 분반활동은 농촌현에 충분히 준비되지 못한 반면 분반별로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여성농민들의 경우 민요강습을 통해 우선 친밀해진 후 대화와 토론을 유도했으며 총학생회의 순회교양팀의 여성농민에 대한 의식의 변화에 도움이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반

활동이 여성농민의 농촌에서의 위치를 극복할 수는 없었다.

이번 농촌활동에서는 정부의 ‘농촌발전대책안’과 ‘농수산물수입개방’에 대해 농민과 토론을 하면서 농촌현실의 이해에 도움이 되었다.

그러나 농촌이 지니고 있는 불균형적인 성격과 가부장제 성격을 분반활동에선 고려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농촌활동에서 농민들에게 많은 호응을 받았던 현의대, 치이동진로반의 ‘진로봉사’ ‘문화선전대’, ‘마사지팀’ 등은 도시에 비해 문명혜택을 제대로 받지 못



해 관념적이고 원본적인 평가에 그친 예도 많았다.

또한 학생이라는 존재를 속에서 나오는 나라의 안일함은 종종

“그 동안 수고 했다”며 대원들의 손을 잡고 눈시울을 글썽이게 하는 아저머니, 할머니의 모습은 황폐해가는 농촌의 현실에서 아직까지 순수한 농촌의 마음을 대변해 주었다.

전체 농촌활동대와 그 지역 농민들이 한자리에 모여 진행된 군민대회는 농민의 참여가 적극적이었고, 가두행진등을 통해 발전된 농촌현대를 확인했다.

한편 농촌활동에서 마을상황에 대한 실제적인 이해와 준비를 위해 다음 활동을 위한 후속작업의 일환으로 구체적인 평가서의 작성이 요구된다. 이와 함께 다음 주계농촌활동을 위한 농민회 또는 마을주민과의 합리적인 연계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 대동제때 ‘농촌총각 모의 결혼식’ 등의 행사 또한 일회적이어서는 안될 것이다.

(김유선 기자)

근로와 대화속에 싹튼 농학연대 구체적 평가 따른 후속작업 절실

등으로 지쳐있는 대원들은 기다린다.

하는 농민들에게 반가운 손님이었다.

평가회를 올바르게 진행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인으로 작용한다.

농촌활동의 마무리라 할 수 있는 마을잔치 및 군민대회는 근로활동과 분반활동의 총화물로 농민들과의 유대 및 스스로의 활동을 정리하는 자리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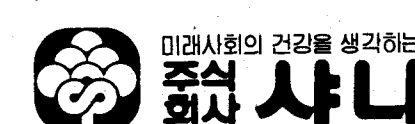
농촌아저머니들을 중심으로 함께 준비하게 되는 마을잔치에서는 그 동안 함께했던 농민들과의 생활속에서 다시금 농촌활동의 참의미를 깨닫게 했다.

창의력으로 성장하는 기업-샤니



신선한 아이디어가 존중되고, 야망있는 젊은이들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기업입니다.

샤니의 가장 큰 재산은 사원들의 무한한 창의력과 잠재력입니다. 지난 18년동안 쌓아온 KNOW·HOW를 바탕으로 세계적 기업으로 성장해온 샤니-항상 새로운 제품개발로 국내 소비자들의 호응을 얻고 있음은 물론 해외에서도 잠재력이 큰 기업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치열한 국제경쟁속에서 샤니가 이렇게 세계적 기업으로 인정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항상 신선한 아이디어를 찾고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려는 샤니의 노력과 함께 사원 한사람의 숨은 잠재력을 개발해내는 창의적인 사풍 때문입니다. 더 나은 내일을 향해, 보다 풍요로운 사회를 위해 함께 가는 샤니의 미래를 지켜봐 주십시오.



■(주)B.R KOREA

미국 BASKIN ROBBINS 아이스크림사와 합작투자 580여종의 순수 천연 아이스크림 생산.

■(주)파리크라상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프랑스풍의 최고급 베이커리.

■(주)대인유통(LAWSON'S)

세계적인 미국 Dairy Mart사와 기술 제휴로 CVS(편의점) 체인점 운영.

■(주)대인산업

식품 및 원료의 수출입업과 판매설비의 엔지니어링, 제작.

최근 놀라운 성장을 거듭해온 (주)샤니는 업계 최초로 정부공인 종합기술연구소를 운영하며 종합식품업체로 유통산업, 수출입업, 엔지니어링 사업에도 참여하여 기업의 국제화를 지향하는 잠재력이 있는 기업입니다.

■(주)샤니

달콤하고 맛있는 빵·케이크의 대명사 샤니는 전국적인 판매망을 갖추고 1일 3백50만개의 제품을 생산.

■(주)B.R KOREA

미국 BASKIN ROBBINS 아이스크림사와 합작투자 580여종의 순수 천연 아이스크림 생산.

■(주)파리크라상

국내 최고의 품질을 자랑하는 프랑스풍의 최고급 베이커리.

■(주)대인유통(LAWSON'S)

세계적인 미국 Dairy Mart사와 기술 제휴로 CVS(편의점) 체인점 운영.

■(주)대인산업

식품 및 원료의 수출입업과 판매설비의 엔지니어링, 제작.